

지역시설복합 무료노인복지시설의 거주만족도
Residential Satisfaction of No-Charge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Integrated with Community Facility

박인영* 박경옥**
Park, In-Young Park, Kyoung-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no-charge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with pay-training institute on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taffs and fifty one residents of welfare facility by interview and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A half of the elderly were aged over seventy five years old, eighty four percents of them were female, and seventy seven percents of them were non-educated. Forty two percents of the elderly considered themselves to be unhealthy, but the ADL data reveals that they are relatively healthy. The most of residents are highly satisfied with whole welfare facility. But,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bathroom, the storing space, the cooking table and the benches were relatively low. These dissatisfactions can be solved by the expanding of the storing space, setting up of a common washing room and electric cooking stove, and the increasing of the number of benches. Also, it was recommended for the elderly to set up the Ondol-style rest room with the western style rest room.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attached training institute with no-charge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were high. This has positive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refore, the community integrated welfare facility can be the alternative plan for the enhancemen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elderly life.

Keywords : Residential satisfaction, Community integrated welfare facility,
No-charge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정 회원, 충북대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정 회원, 충북대 주거환경·소비자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술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7.2%나 차지하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노년기에는 노인자신만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특히 가족의 능력으로 노인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가족이 없는 독신노인은 시설보호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주거로서 시설주거를 선호하고, 노인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양로시설이나 요양소를 선호하게 되므로,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요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노인시설과 지역시설의 복합화는 공적 복지서비스의 기능을 보충할 수 있고, 세대간 교류를 증대하여 주며, 지역의 잠재적 복지력을 활용할 수 있다(김태일, 1997). 즉 고령자 보호를 위한 효율성은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공립 소중학교의 여유교실을 고령자복지시설로 복합화하여 노인들의 작품전시나 화단가꾸기 등으로 노인과 아동의 상호교류를 증대하였다(本庄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 199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무료노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시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시설복합화가 이루어진 G무료노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시

설의 특성과,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를 분석하여, 앞으로 무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설립·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노인시설과 지역시설의 복합화를 이루고 있는 G무료노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1) 무료노인복지시설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본다.
- 2) 무료노인복지시설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개인공간 및 공동공간에 대한 거주만족도를 알아본다.
- 3) 무료노인복지시설의 복합시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G무료노인양로시설은 2000년에 설립되었고, 규모가 크고,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시설이다. 특히 연수시설과 복합화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 본 연구 내용에 적합하여 사례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시설은 처음에는 유료양로시설로서 출발하였으나 2001년 11월부터 종교단체에서 인수하여 현재는 무료노인양로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

거주인원은 남자는 15명, 여자는 67명으로 총 82명이며, 그 중 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7월 8일에서 7월 19일까지였다.

2. 조사도구

무료노인복지시설의 물리적 특성은 관리자에게 직접 면접하여 조사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노인에 대한 설문 구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ADL측정을 위한 문항(Barthel Index)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지역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인식을 3점 척도로 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개인공간에 대한 문항은 주택의 전반적인 사항을 영역별로 평가한 김현진·이경락·안옥희(2000)의 연구와 이연숙(1993)의 노인주택실내디자인 지침을 참고로 하여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에 대한 문항은 노인에게 심층면접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Ⅲ. 조사결과 및 분석

1. 시설의 특성

본 연구대상 시설은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1, 2, 3동으로 구분되었다. 1동은 연수시설이고, 2동은 연수시설 이용자식당, 휴게실겸 특산품코너, 안내데스크, 운영본부사무실, 노인식당, 이·미용실, 도서실겸 취미실, 강의실 등이 있다. 3동은 주로 노인들의 개별실이며, 매점과 만남의 장소, 커뮤니티홀 겸 취미작업실, 기도실겸 강의실 등이 있다. 지하에는 대중목욕실, 찜질방, 노래방, 휴게홀, 다목적홀, 시설관리센타가 있다. 실외공간으로는 산책로와 텃밭, 체육공

원, 바베큐장 등이 있다.

생활관련서비스로는 식사, 가사, 이동,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의료서비스는 전문의사가 1개월에 한번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다. 간호와 재활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명의 복지사가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며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많은 자원봉사자가 시설의 내·외부를 청소하는 등 실제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보조하고 있었다.

2. 거주만족도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남자노인이 15.7%, 여자노인이 84.3%이고, 연령별로 보면 74세 이하가 53%, 75세 이상이 47%이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노인이 76.5%로 일부 대학을 졸업한 노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무학이었다.

용돈은 84.3%가 20만원 미만이었지만,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한 달 용돈이 20만원 이상인 노인도 15.7%에 달하고 있었다. 노인들 대부분이 용돈을 현금과 약값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관적 평가에 따른 건강상태는 좋다는 노인이 28%,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30%이었고,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이 42%이었다. 주관적 평가에 따른 건강상태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Barthel Index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측정하였는데, 2가지 이상의 항목에 불편을 나타내는 90점 미만의 노인이 16%이었고, 90점 이상의 노인도 84%로 대부분 일상생활 수행능력에는 지장이 없었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N=51

구분		빈도	%	계
성별	남	8	15.7	100.0
	여	43	84.3	
연령	74세 이하	27	53.0	100.0
	75세 이상	24	47.0	
학력	무	39	76.5	100.0
	유	12	23.5	
건강상태	좋다	14	28.0	100.0
	보통이다	15	30.0	
	나쁘다	21	42.0	
ADL	90 미만	8	16.0	100.0
	90 이상	42	84.0	
용돈	20만원미만	43	84.3	100.0
	20만원이상	8	15.7	
질병	유	40	78.4	100.0
	무	11	21.6	

* p<.05

2) 개인공간 및 공동공간에 대한 만족도
노인들은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대해 높은

만족도(2.8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설에 입주하여 입주전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공간 전체의 만족도는 2.78로 공동공간의 내부(2.93), 외부(2.90)의 만족도보다 낮았다. 개인공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공간은 수납공간(2.44)이고, 목욕실(2.46)도 만족도가 낮았다. 또 방의 크기(2.60)와 부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2.62)에 대해서도 비교적 다른 공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공동공간에서는 건물외부의 벤치의 수에 대한 만족도가 2.52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았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실의 방의 크기에 대해서는 72.0%가 만

표 2. 개인공간 및 공동공간의 만족도

시설	만족		보통		불만족		이용안함		계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개인공간	방	36	72.0	8	16.0	6	12.0	0	0.0	100.0	2.60	
	목욕실	36	72.0	1	2.0	13	26.0	0	0.0	100.0	2.46	
	출입문	48	96.0	2	4.0	0	0.0	0	0.0	100.0	2.96	
	현관	45	90.0	2	4.0	3	6.0	0	0.0	100.0	2.84	
	알코너	44	88.0	2	4.0	4	8.0	0	0.0	100.0	2.80	
	수납공간	36	72.0	0	0.0	14	28.0	0	0.0	100.0	2.44	
	비상벨	43	86.0	5	10.0	2	4.0	0	0.0	100.0	2.82	
	부엌의 미설치	39	78.0	3	6.0	8	16.0	0	0.0	100.0	2.62	
	소음	49	98.0	1	2.0	0	0.0	0	0.0	100.0	2.98	
	동풍환기	47	94.0	1	2.0	2	4.0	0	0.0	100.0	2.90	
	조명	50	100.0	0	0.0	0	0.0	0	0.0	100.0	3.00	
	난방	50	100.0	0	0.0	0	0.0	0	0.0	100.0	3.00	
	침대의 미설치	40	80.0	4	8.0	5	12.0	0	0.0	100.0	2.68	
	화분대 미설치	44	88.0	2	4.0	4	8.0	0	0.0	100.0	2.80	
개인공간 평균											2.78	
공동공간	내부	복도	50	100.0	0	0.0	0	0.0	0	0.0	100.0	3.00
		식당	46	92.0	3	6.0	1	2.0	0	0.0	100.0	2.90
		계단	41	82.0	1	2.0	3	6.0	5	10.0	100.0	2.56
		승강기	48	96.0	1	2.0	1	2.0	0	0.0	100.0	2.94
		내부공간 평균										2.93
	외부	산책로	46	92.0	0	0.0	1	2.0	3	6.0	100.0	2.78
		주차공간	43	86.0	1	2.0	0	0.0	6	12.0	100.0	2.62
		정원	44	88.0	1	2.0	0	0.0	5	10.0	100.0	2.68
		딛밭	44	88.0	1	2.0	0	0.0	5	10.0	100.0	2.68
		벤치	40	80.0	0	0.0	6	12.0	4	8.0	100.0	2.52
		외부공간 평균										2.90
공동공간 평균											2.87	
전체 평균											2.84	

족하였고, 74%의 노인이 2인 1실을 선호하였다(표 생략). 노인들은 대부분 그 이유를 혼자서는 외롭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목욕실은 72%가 만족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다른 공간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노인의 특성상 세탁기를 이용한 기계빨래보다는 손빨래를 원하기 때문에 개별 욕실은 손빨래를 하기에 다소 비좁아 불만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세탁기만 있는 세탁실보다는 우물가의 빨래터처럼 손빨래를 할 수 있고, 또한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장소가 마련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납공간에 대해서는 72%가 만족하였으나 노인들의 불만족도 28%나 되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옷의 보관을 위한 서랍장의 요구가 높았다. 이는 결국 개인 수납공간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있다. 또 일부 노인은 금고와 같은 개인사물함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6%가 불만을 나타냈는데 완벽한 조리기구의 설치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가열기기 만이라도 있기를 희망하였다.

3) 서비스시설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시설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2.84로 높았으며, 휴게실에 대한 만족도가 2.94로 가장 높고, 스포츠실에 대한 만족도가 2.36으로 가장 낮았다.

의료·물리치료실은 간호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전문의사(자원봉사자)가 한 달에 한 번 방문 진료하고 있었다. 이 시설은 항상 이용 가능하여 78.7%가 만족하였다.

기도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노인이 만족(89.6%)하고 있었다. 장식이 없는 넓은 홀로 되어 있었지만, 좌식의 형태로 되어 있어

서 노인들의 생활습관과 잘 맞아, 노인들은 앉아서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어 편안하기 때문에 즐겨 이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좌식의 모임공간은 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으로 보인다.

스포츠실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설로 70.2%만이 만족하고 있었다. 스포츠실에는 런닝머신 등 스포츠 기기가 많아 17%의 노인이 기기의 이용을 꺼려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취미실에서와 같이 스포츠실에도 노인들에게 설명해 줄 스포츠 지도자나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으면 노인들이 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자 노인들은 스포츠 기기의 종류가 적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대중욕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대답한 노인이 70.2%로, 서비스시설 중 불만요소가 제일 많은 시설이다. 이전에는 남·녀 대중욕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남자욕실을 대체하여 찜질방을 만든 것도 좋기는 하지만, 대신 비좁아진 욕탕에 불만을 나타냈다.

휴게실에 대한 만족은 93.8%로 높게 나타났다. 3층과 4층은 주로 여자노인이, 2층은 남자노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휴게실

표 3. 서비스시설에 대한 만족도

N=47

시설	만족		보통		불만족		이용 안함		계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의료·물리치료실	37	78.7	8	17.0	2	4.3	0	0.0	100.0	2.74
기도실	43	89.6	4	8.3	0	0.0	1	2.1	100.0	2.88
스포츠실	33	70.2	4	8.5	2	4.3	8	17.0	100.0	2.36
대중욕실	33	70.2	4	8.5	10	21.3	0	0.0	100.0	2.51
이·미용실	44	93.6	1	2.1	0	0.0	2	4.3	100.0	2.85
휴게실	45	93.8	2	4.2	1	2.1	0	0.0	100.0	2.94
취미실	41	87.2	2	4.3	0	0.0	4	8.5	100.0	2.70
편의시설(매점)	44	93.6	0	0.0	2	4.3	1	2.1	100.0	2.85
계										2.84

은 노인들이 개별실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표 생략)이기에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복합시설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시설을 이웃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74%가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해도 좋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표 생략).

‘연수시설이 있어서 활기차다’라는 항목에 대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80%로 젊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고 하였다.

‘연수시설로 인해 시끄럽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끄럽지 않다가 64%,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14%로 연수시설에 온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즐겁고, 때로는 연수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겹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연수시설 때문에 방해받을 않는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이 80%(보통이상)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곳으로 놀러간다고 응답했다.

‘연수시설이 있어서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80%로 연수시설 전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불만인 사람은 없었다. 관리자도 노인들이 연수시설에 오는 사람들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등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복합시설에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었다.

표 4. 복합시설에 대한 인식

항목	구분	빈도	%
연수시설이 있어서 활기차다 (영향)	그렇다	31	62.0
	보통이다	9	18.0
	그렇지 않다	0	0.0
	잘 모르겠다	10	20.0
	계	50	100.0
연수시설로 인해 시끄럽다 (소음)	그렇지 않다	32	64.0
	보통이다	7	14.0
	그렇다	1	2.0
	잘 모르겠다	10	20.0
	계	50	100.0
연수시설 때문에 방해받을 않는다 (사생활 침해)	그렇지 않다	30	60.0
	보통이다	7	14.0
	그렇다	3	6.0
	잘 모르겠다	10	20.0
	계	50	100.0
연수시설이 있어서 좋다 (전체에 대한 인식)	그렇다	30	60.0
	보통이다	10	20.0
	그렇지 않다	0	0.0
	잘 모르겠다	10	20.0
	계	50	10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전체에 대한 거주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 시설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시설복합화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2) 개인공간 중 개별실에 대해서는 방의 크기가 다소 좁고, 수납공간이 적는데 불만을 나타냈는데, 서랍장과 개인사물함 등 수납공간에 대한 충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은 기기의 사용보다는 손빨래를 좋아하는데 특히 여자노인은 개별실의 욕실이 손빨래를 하기에 장소가 협소하여 남자노인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탁기만 있는 세탁실이 아니라 공동체 형성의 장소로서의 공동세탁실이 필요하다. 또한 여

자노인들의 부엌의 미설치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가열기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3) 노인들이 개별실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휴게실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입식의 휴게공간과 좌식의 휴게공간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시설 중 대중욕실에 대한 불만이 제일 높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넓은 욕실의 확충이 필요하다.

4) 외부공간에 대해서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일반인보다 좀더 자주 쉴 곳이 필요하게 되므로 시설의 외부공간에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노인시설과 지역시설의 복합화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이 노인시설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며 노인시설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등 상호 교류의 장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교류는 노인의 정서안정에도 기여하므로 앞으로 노인시설은 세대간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복합시설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무료노인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이나 종교단체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자원과 효율성을 고려한 노인시설과 지역시설의 복합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시설이 복합화된 외국의 노인복지시설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김태일(1997). 고령자 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지역시설활용에 관한 연구-일본의 지역시설 개조활용 사례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4), 3-14.
2. 김현진, 이경락, 안옥희(2000). 노인주택의 평가항목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1(3), 75-86.
3. 신경주, 황은주(1996).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실태 및 거주자만족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8), 83-93.
4. 최순남(1995).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 출판부.
5. 홍형욱(1999). 한국의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주거의 대안적 모색 -노인생활지원 주택의 개념도입과 제도적 탐색-. 한국주택학회, 7(2), 75-91.
6. 本庄宏行, 三橋伸夫, 藤本信義(1999). 公立小中學校の餘裕教室を活用した高齢福祉施設の複合化の實態と課題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を中心とした複合事例.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第521號, 127-132.
7. Mahoney. FI., Barthel D.(1965) "Functional evaluation: the Barthel Index." Maryland State Medical Journal 14. 56-61.